

농촌지역의 빈곤탈피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성아, 박고운(부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 연구목적

농촌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양식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양적인 생산성만을 강조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하던 사회구조는 생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던 우리나라 농촌을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시켰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개발, 산업부문간의 불균형발전은 농촌 주민의 이농과 이촌을 꾸준히 증가시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빈곤의 실태를 도시와 비교하여 형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 탈빈곤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 하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관리공단, 통계청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빈곤정도를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을 Gilbert와 Specht가 제안한 정책분석틀인 급여의 대상 및 종류, 전달체계, 재원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통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한다.

3. 주요 결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농촌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8%수준이며 농가 가구당 농가부채는 1990년에 비해 2002년에 약 20%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이농을 가속화시키고 남은 농촌인구역시 농업을 포기하게 하여 농촌의 몰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성격이 독일 등과 같이 조합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 도입의 본래 의도는 특정 직업,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에서, 농촌지역의 탈빈곤을 위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의 도입시기가 빠른 선진국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의 역사가 10여년 정도로 짧은 편이고, 더욱이 재정분권화는 2005년에야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

4. 결론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중앙정부의 대표적 탈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한 탈빈곤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화의 역사가 짧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이 역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탈빈곤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빈곤정책 수혜율의 격차를 줄여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해야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탈빈곤정책이 필요하다.